

2013 하반기 신규과제 소개

수시 과제

0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 현장은 2012년 12월 기준 총 790곳(1463동)으로 이 중 595동(40%)은 공사재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868개동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환경 훼손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크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2013.5.28.)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법률은 전체 조문이 14개에 불과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로 법률이 작동하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수시 과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유광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례 연구	이상민

이들 내용을 하위법령을 통해 입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고, 법률의 하위규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변 지역 경관 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관련 하위법령 마련이나 법률 시행에 수반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광흠

0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지난 4월 기존의 물리적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4.제정)이 국회를 통과해 국내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재생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역의 재정·인력·제도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정착한 해외 국가들은 여러 관련 주체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각기 다른 사회적 여건과 지역적 상황 등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다양한 지원조직과 그 운영체계를 조사해 국내 도시재생 정책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일본·프랑스 등의 구체적인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원 체계와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찾고자 한다.

이상민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수탁 과제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상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 연구	유광흠
	행복주택 개발모델 창출 연구	김상호

수탁 과제

01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건축기본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역녹색건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로, 충청남도청의 발주로 올해 8월에 착수해 2014년 10월 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개월간 진행될 이번 연구를 통해 충청남도 전역 15개 시·군의 건축물과 공간 환경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창의적인 도시환경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규

02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 연구

현행 건축사의 설계용역 대가기준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비요율방식은 부정확한 추정공사비를 대상으로 산정됨에 따라 공사 난이도와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이 건축사의 설계용역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발주 사업 중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 공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 마련은 건축설계 등 건축사 대가 산정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및 다양한 대가기준 활용을 통해 건축사의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가 지급을 통해 건축사의 책임을 강

화하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유광흠

03 행복주택 개발모델 창출 연구

새 정부는 주거복지 공약사항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시스템으로서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건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부의 발주로 지난 7월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본 연구는 국토연과 협업체제로 진행되며, 국내외 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행복주택의 수요를 분석해 행복주택의 소프트웨어적 지원 및 하드웨어적 건설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근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 6개월간 진행될 본 연구에서 행복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본격화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해 행복주택 정책의 안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상호

포럼 및 세미나

한옥포럼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제 2차 개최 (우리가 짓고 싶은 한옥)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와 명지대학교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한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이 7월 11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가 짓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올해 하반기에 1차로 연구 성과가 완료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옥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에서는 한옥의 현대화를 위해 2009년부터 한옥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왕직 한옥기술개발연



구단장은 한옥의 거주 성능 향상과 가격저감 방안에 대해 지난 4년간의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류재선 대표가 온고재, 지신재(명지대학교 실험한옥)과 오동재(한옥호텔), 은평한옥마을 시범 한옥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된 다양한 예산절감 및 기술향상을 위한 고려 항목들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강민 센터장은 한옥기술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향후 국가한옥센터를 통한 한옥기술의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한옥기술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옥문화라는 틀 속에서 인문학과 미학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왕기 교수(목원대학교 건축학부)를 좌장으로 김근오 과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준영 연구위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동훈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목재가공과), 정연상 교수(국립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최기영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향후 보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2013 국토교통 TECHNOLOGY FAIR」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곳곳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해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다음 포럼은 11월에 '우리가 돌보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행사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건축도시포럼**2013 제2회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공간복지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9월 5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13 제2회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열었다.

'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공간, 행복한 국민'이라는 취지 아래 '공간복지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제해성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번 포럼은 사회기반시설로서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공간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공동체, 생활공간,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공간복지의 통합된 개념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서울 신림동, 안산 선부2동, 인천 부평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도시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법·제도에 의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고 생활 속에서 능동적 복지를 키워 나가는 '공공적 민간(공공의 역할을 하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 2012년 복지건강마을 공동체 사례를 통해 복지건강 마을공동체에 대해 지속가능한 실행 시스템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윤영호 선임연구위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헬스케어 기반의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거주자 자립도에 따른 거주자 유형 분류, 주거 공용공간의 필요 프로그램 등을 분석했으며,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헬스케어 공간계획을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헬스케어, 고령친화, 주거공간의 각 고유 영역과 융합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 디자인 기본방향 및 세부 아이টে를 선보였다.

김상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공간복지의 출발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주제로 현 국내외 어린이집 관련 법·제도와 건설비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해 디자인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는 한편 웹기반 공공건축물 디자인관리시스템(PDAT)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훈 교수(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건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강맹훈 주택건축정책관(서울시청), 김경현 사무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서종균 소장(한국도시연구소), 한상삼 이사장(주거복지연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공간복지와 창조경제의 연계성 및 정책적 구현 방안, 맞춤형 또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공간의 확충과 공간환경의 개선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있어 공간복지와 주거복지가 가지는 의미와 현황을 돌아보고 공간복지라는 정책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지식강연회**20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제 3차 지식강연회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제3차 지식강연회를 8월 6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지식강연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가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간의 삶을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복지’이고 ‘중산층 비율 · 고용률 · 건강보험보장률을 70%로 높인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강연은 사회문제의 발생과 복지국가의 출발, 한국의 복지 환경과 복지 수요,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분배구조의 악화 및 대응 방안을 차례로 다뤘다.

강연 내용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등장은 크게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두 가지의 의해 촉발됐다. 1인 1표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1주(株)1표로 많이 가진 자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자본주의라는 상이한 두 가지 사회지배원리의 결합에 기반한 현대 사회에서 모순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그 모순으로 가장 흔히 논해지는 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이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복지국가 등장의 내적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외적요인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상적 결합의 등장과 세력화에 대한 자본주의 진영의 위기감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혜 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연금 · 고용 · 산재 등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이에 속한다. 공공부조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로 보험료가 없고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대표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험료가 없고 자산 유무와도 무관하며, 노인복지 · 아동 청소년 복지 · 장애인복지 · 여성 가족복지가 이에 속한다.

본 강연에서 지적된 현재 한국의 복지 환경은 저성장, 비정규직의 급증, 높은 비율의

가계 · 공공 부채, 빈곤과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감소 등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초저출산율의 장기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사회화를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노령인구비율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동반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복지차원의 대응은 우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투자와 함께 일 ·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아동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연자는 전했다.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으로는 일 · 가정 양립지원 강화를 통한 경력단절 방지와 평등한 고용환경 구축, 인력활용 다양화로 여

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등을 들었다. 직장에서의 고령자 활동기간 연장, 고령자 취업 지원 강화,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령인력의 활용 등도 중요한 전략으로 꼽혔다.

아울러 강연자는 고령사회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근로시스템과 연

금시스템의 연계, 다층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구축과 함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건강생활 보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연자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며, 정년 연장과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것을 역설했다.

이번 제3차 지식강연회는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기본개념을 이해하면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복지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옥인문학 강연회

2013 제4회 한옥인문학 강연회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7월 23일 연구소 3층 중회의실에서 '2013 제4회 한옥인문학강연회'를 열었다. 한옥인문학강연회는 한옥에 담긴 인문학

적 의미들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과 토론의 시간을 갖는 행사다. 그동안 1~3회 강연회에서는 가정신앙과 관련한 가정신앙으로서의 가신, 민화 속에 나타난 집 등 옛집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4회 강연회에서는 김영봉 연구교수(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가 '한옥의 현판과 주련'이라는 주제로 궁궐과 민가건축의 현판과 주련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액은 '집의 머리 부분인 문 위에 글을 달다'는 뜻으로 집의 이름을 나무판자에 새긴 것이며, 주련은 기둥에 붙인 글귀를 일컫는 것으로 한자문화권의 독특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옛 문헌이나 집 주변의 자연을 묘사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글귀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이름을 붙였고, 이름은 다시 집 주인의 호로 사용하는 등 집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인식해 왔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오늘날의 현대적 공간에서 담아야 할 의미와 가치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소 단신

MOU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외교부 MOU 체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제해성)는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지난 7월 12일 외교부 소관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해외공관 등 외교부가 조성·운영하는 국내외 국유재산 관련 사업의 통합관리계획 수립, 디자인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 전문가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등 외교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와외의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는 해외공관의 품격 제고 및 효율적 운용에 우리 연구소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과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전 개최

2013 AURI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창의적 설계, 공정한 경쟁, 적절한 대가'의 실현을

저해하는 건축설계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아가 건축설계 관련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논의해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기타 법령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3 AURI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건축설계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공모 주제로 해서 전문가와 관련 업체 종사자 개인 또는 3인 이내 그룹(건축 컨설팅,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실무자·교수·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접수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10월 중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검토 후 우리 연구소와 공동 연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워크숍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 국가한옥센터는 지난 7월 4-5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대학교·명지대학교·경상대학교·건축사협회(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건설기술교육원(한옥 중간관



리 양성과정), 지용한옥학교(대학생 한옥 캠프과정) 등 2013년 국토부 선정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와 최기영 대목장 등 관련 전문가, 국토해양부·전라북도·고창군청 공무원 등 4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들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201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 2013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신규사업 지자체인 하동군·완주군·강릉시·부산시 담당공무원에게 사업 추진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워크숍이 지난 7월 16일 우리 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내부 모니터링 연구진과 이태훈 하동군청 주무관, 오성택 완주군청 주무관 등 주무부서 실무자가 참석해 2013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 행정 주체의 인식과 역할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